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10821226-0180

# 光州日報

부자결혼의 꿈은, **이루어진다!!!**  
 대표이사인도 임명권  
 광주지사 062-228-3222

The Kwangju Ilbo

## 광주·전남 지방의원 당선자 10명중 7명 “단체장 견제기능 미흡”

■광주일보, 지방의원 당선자 168명 설문조사

78% “기초 단체장·의원 정당공천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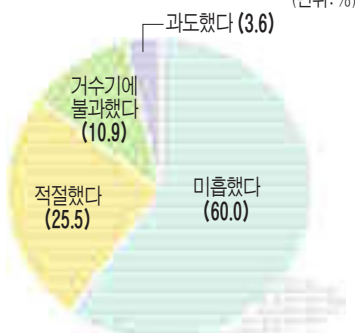
민선 4기를 열어가 5·31 지방선거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 당선자 10명 중 7명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또 정당공천에 대해서 10명 중 8명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현행 지방의회 의장 선거 방식은 후보 등록과 정견발표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의원들은 민선 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문제로는 ‘선심행정’을, 향후 의정활동에서 가장 역점을 둘 분야로는 농업·농촌문제 해결과 소외계층 복지 확대를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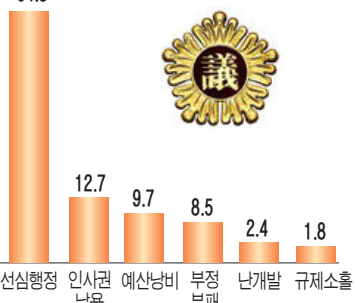
이같은 내용은 광주일보가 5·31 지방선거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 당선자 381명을 대상으로 지난 22~24일 사흘동안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드러났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는 광역의원 49명, 기초의원 119명 등 모두 168명이었다. <관련기사 3면>

지방의원 당선자들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의회의 단체장 및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0.0%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수준 (단위:%)



■민선지자체장의 문제점 (단위:%)



가 ‘미흡했다’고 답했으며, ‘거수기’에 불과한 수준이었다는 응답도 10.9% 나왔다.

정당공천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광

역단체장’ 23.8%,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은 53.8%로 전체의 77.6%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책정된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에 대해서 ‘불만족스럽지만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고, ‘턱없이 부족하다’ 38.1%, ‘유급제 폐지’ 12.5%, ‘민족한다’ 3.6% 순이었다.

‘고향선출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지방의회 의장 선거방식을 놓고는 찬반이 팽팽했으나 개선 여론이 우세했다.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기회 부여’에는 54.5%, 현재와 같은 ‘무기명 비밀투표’에는 45.5%가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임명권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장이 가져야 한다’는 견해가 88.7%로 압도적이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 정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32.7%, ‘미흡한 편’ 64.2%로 전체의 96.9%가 부족함을 지적했으며, 가장 우선적으로 이양돼야 할 분야로는 자율적인 ‘재정운영권’(69.3%)을 꼽았다.

민선 단체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64.8%가 ‘선심 행정’을, 12.7%는 ‘인권 침해’를 들었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방의회 기능강화’(48.8%)와 ‘주민의 참여의식 확대’(33.7%)라고 응답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첫 軍用위성 ‘무궁화5호’ 8월10일 발사

우리나라의 네번째 상업용 위성이자 최초의 군용 통신위성인 ‘무궁화 5호’가 오는 8월 10일 발사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민군 공동 통신위성인 무궁화 5호를 오는 8월 10일 남태평양 공해상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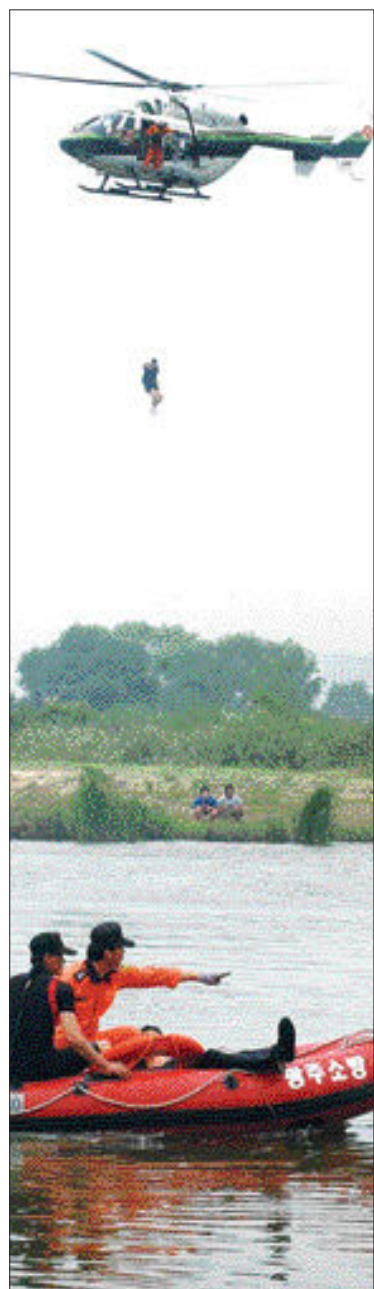
무궁화 5호는 남 태평양 공해상의 대형 선박위에서 3만6천km 상공의 정지궤도(동경 113도 적도지점)로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체 제작사인 씨 론치(Sea Launch)사가 발사를 담당하며 오는 11월까지 위성체 및 중계기 제작사인 프랑스의 알카텔사가

시험운영을 한 뒤 무궁화 5호 공동사업자인 국방부와 KT가 위성을 인수, 공동관제를 실시한다.

KT와 국방부는 28일 경기도 분당 KT 본사에서 11월 이후 무궁화 공동관제를 위한 합의를 체결한다. 양측은 발사 후 1년동안은 군과 KT가 6개월씩 관제를 실시하고 2년째는 1년동안 KT가 관제를 하기로 합의했다.

무궁화 5호는 거주성 역할을 하는 하나의 위성체에 군용 중계기 12개와 상업용 중계기 24개가 탑재된 것으로 특히 군용 중계기는 적의 전파방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전자전 기능을 갖추고 있다. /연남뉴스



홍수해 방재훈련

광주시 서구청은 27일 오후 서구 유덕동 덕흥부락에서 소방관, 군 병력, 서남대병원 의료진 등이 참가한 가운데 소방헬기와 고무보트 등을 동원한 ‘홍수해 대비 방재훈련’을 실시했다. /위지랑기자 jrwi@kwangju.co.kr

## 韓·中 외교장관

### “北 미사일 협력 대응”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은 27일 북한 미사일 문제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

반기문 외교부총장 장관과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긴급회담을 갖고 이런 공통인식 아래 양국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미사일과 6자회담 문제에서 역할을 해 나가기로 뜻을 모으고 회담에 배석했던 이혁 외교부 아태국장이 전했다.

반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우려를 표시하고 현재로서는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를 하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어 “북한을 잘 설득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중국측에 당부했다고 이 국장은 말했다.

이에 대해 리자오싱 부장은 “6자회담이 정체상태에 빠진 가운데 새로운 문제가 생겨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양국측에 관심을 표명했고 관련 각국에도 관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리 부장은 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회피하도록 하는 데 노력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장관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한중간 긴밀히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알림**  
**제51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 발표회**  
 7월 2일 오후 3시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전통의 광복예술제, 제51회 호남예술제가 뜨거운 성원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29일부터 두달이 동안 계속된 이번 호남예술제에서는 수많은 공연자들이 참가해 음악, 무용, 국악, 미술, 방송, 농악 등 각 부문에서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광주일보는 이번 대회에서 전국 최고의 가량을 선보인 최고상 수상자 각품 발표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각 부문별 연구와 전시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가늠할 최고상 공연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호남예술제에 대해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7월 2일(일) 오후 3시
-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 발표자: 제51회 호남예술제 각 부문 최고상 수상자
- 문의: 062-220-0541, 062-222-8111

주최: 광주일보사  
 협찬: LAUREN, 삼성생명, GS칼텍스

## 이주성 국제청장 전격 사퇴

이주성(사진) 국제청장이 27일 사퇴했다. 국제청은 “이 청장이 오늘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해 3월15일 국제청장으로 취임해 1년4개월여간 국제청을 이끌었다.

이 청장의 갑작스런 사임은 인사 직제를 빚고 있는 국제청의 인사사슬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이날 국제청 간부들에게 밝힌 사임 소회를 통해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업무가 마무리되거나 체계를 잡아감에 따라 청장직을 마무

리할 최적의 시기가 되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철학과 원칙에 바탕을 두고 추진한 핵심 업무들이 마무리돼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특히 그동안의 격무로 인해 건강상으로도 업무수행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후임 청장에는 내부에서 발탁될 경우 전권표 국제청 차장이 유력하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광양항 개발 축소’ 반발 확산

정치권·전남도·광양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해양수산부의 광양항 개발 축소 움직임(본보 27일자 1면)에 대한 정치권과 전남도 및 광양시, 지역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질의에서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광양·구례)은 “해양수산부의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정부의 양항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의 일방적인 광양항 개발 축소 방침의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중식 의원(고흥·보성)도 “지난 KDI(한국개발연구원) 용역에서 광양항과 부산항 개발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영남지역 의원들이 반발했고 이에 따라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용역을 다시 실시, 광양항 개발을 축소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전남도 이인근 해양항만과장은 이날 서울 전경련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무역항정비계획안 공청회’에 참석, “해수부의 용역결과는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크게 어긋나고, 광양·부산항을 동시에 육성하는 정부의 ‘투포트 시스템’에 전연 배치되므로 이를 철회하고 최초 개발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항개발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박형배 운영위원장은 “부산항은 3선석만 풀이면서 광양항은 13선석이나 축소하겠다는 방침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월드컵 스코어 보드

|       |   |    |   |     |
|-------|---|----|---|-----|
| 이탈리아  | 1 | 10 | 0 | 호주  |
| 우크라이나 | 3 | 강  | 0 | 스위스 |

후원학원 등록 5,600 원 시범반 진행  
**남부대학교**  
 http://www.namj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7:00~24:00

새로운 캠퍼스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jch.ac.kr  
 ▶ 상담전화: 058-9251 ▶ 1,000-360-3000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總物價情報**  
 http://www.kpi.or.kr  
 ▶ 상담전화: 02-733-1111 ▶ 11월 24일 정기발행  
 TEL: 077-7300 FAX: 077-733-4832

지탄 받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오아시아나